

Poly Village

PolyMirae Magazine
2020 New year Vol.4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한번 더 생각하고 배려하고 보듬으며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는 2020년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Metocene MF650W, MF650X, MF650Y

부직포의 혁신, 메토센 제품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경쟁력을 메토센 제품에서 찾으세요!

일반 멜트블로운보다 우수한 섬유 인장강도, 깨끗하고 우수한 작업성, 낮은 공정온도로 부직포 업체 고객들의 제품개발과 가공성 개선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Poly Village

2020 New year Vol.44

Poly & Business

- 04 CEO 메시지
2020년 대표이사 신년사(新年辭)
말티노 가벨리치 대표이사/사장
- 06 오늘 폴리미래
직장 내 세대 간 화합을 위하여
인사·노사협력팀 정승호 상무
- 08 기술이 미래다
폴리프로필렌(PP)의 용도 확장을 위한 표면개질
기술팀 하구열 상무
- 12 현장스케치
울산피피 공장 기공식 개최
2019 폴리미래 우수협력업체 시상식
- 14 특집
지속 가능 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조선비즈 전준범 기자
- 18 뉴스 브리핑
- 29 인사동정

PolyMirae Magazine

폴리마을
통권 제44호
Poly Village Vol.44

발행인
말티노 가벨리치

발행처
폴리미래주식회사

2020 New year

발행일
2020년 1월 3일

기획
사보기획팀

디자인·제작
에브리딩디자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5
TEL (02)2167-8914

이 책은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Poly & People

- 30 포커스 I
폴리미래 한마음 체육대회
- 34 포커스 II
사랑의 김장나눔
- 36 신입사원 소개
“폴리미래인이 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Poly & Relax

- 40 힐링 메시지
- 42 라이프 트렌드
알아두면 편한 2020 새롭게 바뀌는 제도 꿀팁!
파이낸셜뉴스 권승현 기자
- 44 퀴즈세상

폴리미래의 사업파트너 및 직원 여러분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한 새해를 맞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작년 한 해는 화학 산업에 있어 도전적인 한 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미래는 작년 작년 8월, 무재해 9배수(2700일)라는 또 다른 안전 성과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괄목할만한 성취로 우리 모두는 이런 성과를 자랑스러워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에도 우리의 사업장과 행동을 안전하게 유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의 측면에서 폴리미래는 차별화 전략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매출과 전체 스페셜티 제품 매출에서 최고 성과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합작투자 회사인 울산 PP 컴퍼니(UPP)는 최근 성공리에 기공식을 거행하였고, 새로운 PP 공장을 위한 건설 사업이 예정대로 예산에 알맞게 잘 착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새로운 공장은 40만 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며, 가장 최신의 스페리폴 기술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2021년 5월부터 UPP의 신규라인이 가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객, 공급업체, 그리고 서비스 제공업체 모두는 미래를 위해 폴리미래와 같은 포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폴리미래는 지난해 11월에 우수협력업체 시상식을 열고, 협력 업체들의 제품과 서비스의 우수성, 혁신과 성장성,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지속되었던 강한 파트너십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총 8개의 공급업체와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폴리미래는 새로운 직원들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서울과 여수에서 근무할 30명의 젊고 재능 있는 인재들을 채용했고, 이는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는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아시아 폴리프로필렌 산업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 성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 1월
말티노 가벨리치
대표이사/사장



산업 간 무경계, 글로벌 경쟁, 미중 무역 전쟁, 4차 산업혁명 등의 외부 환경 변화와 더불어 기업 내부적으로도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조직의 구성원을 이루는 세대가 점점 더 다양해지는 것이 그것이다. 요즘 대부분의 직장에는 베이비부머, X세대, Y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일하고 있고, 이제 곧 Z세대 또한 사회에 진출할 시점에 서 있다. 자라온 환경과 배경에 따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여러 세대가 회사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며 일어나는 직장 내 세대 간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합의 실마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기업들의 큰 관심사가 되었다. 취업사이트 '사람인'을 통해 발표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직장 내에서 세대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인사·노사협력팀 정승호 상무

보통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를 일컬어 밀레니얼(Millennials), 또는 Y세대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Y세대는 약 14.9백만명(2018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약 29%를 차지하는 핵심 경제인구라고 할 수 있다. Y세대는 기성세대에 비해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금전적 보상보다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상명하복의 수직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쌍방향의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에 익숙하다. 또한 여러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뛰어나며 일과 삶의 균형(Work & Life Balance)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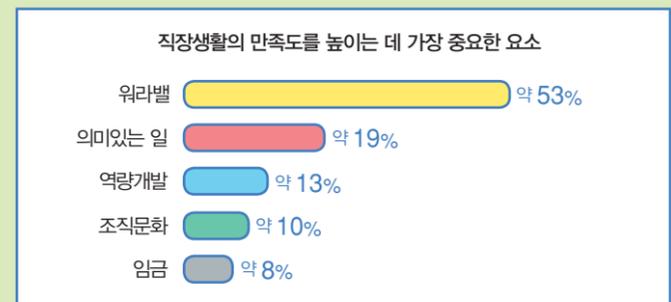


그림1. 폴리미래의 밀레니얼 직원들이 직장생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조사한 결과

폴리미래도 현재 약 38%(162명 중 61명)의 직원이 Y세대에 해당하며, 이들은 2025년이 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회사의 주요 구성 인력이 된다. 올해 인사 및 노사협력팀에서는 밀레니얼 직원들의 직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총 31명의 밀레니얼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직장 내 세대 간 화합을 위하여



언론을 통해 발표된 다른 회사의 통계와 비슷하게 폴리미래 Y세대들의 중요 우선 순위도 워라밸 > 의미있는 일 > 개인의 경력개발 순으로 도출되었다.(그림1) 이 조사의 결과 및 주요 내용은 경영진 및 각 부서 팀장들에게 공유되었으며, 논의를 통해 직장 내 세대 간 화합 강화를 위한 몇 가지 개선 활동이 진행되었다.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멘토링 제도, CEO와 Y세대간의 소통의 시간, 세대 간 화합의 주제로 회사 워크샵 실시, 팀장을 대상으로 한 밀레니얼 이해를 위한 리더십 교육, Y세대의 니즈를 반영한 일부 지원제도 개선 등이다. 서로 살아온 방식과 문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직장 내 세대 갈등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현명하게 극복하기 위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기

과거의 직장인들은 평생직장의 개념에 따라, 야근을 당연시하며 개인적인 생활보다 업무 성과를 더 중요시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요즘 Y세대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회사생활이나 업무 성과는 그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일부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지금 우리가 이러한 차이를 맞고 틀린 정답이 있는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 서로 살아온 시대적 배경과 환경이 다르므로 자연스럽게 생기는 차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설령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틀렸다는 생각보다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통하는 것이 세대 간 격차를 좁혀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2. 의사소통의 벽을 허물기

지식과 경험의 공유를 통해 세대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호간 활발하고 건전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각종 회의나 대화의 장을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무분별하게 회의나 각종 간담회를 늘리는 것은 새로운 업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보고에 의하면 '별다른 내용 없는 상사의 강의', '훈계식 회의', 그리고 '일방적인 명령 분위기의 강압적 회의'를 최악의 회의 형태로 꼽았다.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횟수 보다는 방법이다. 대부분 직장 내 세대 간 갈등은 직급 간 갈등과 연계되어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하위직급과 상위직급 간 갈등은 세대 간의 기본적인 차이 이외에 조직 내 의사소통 경로가 경직되어 있을 경우에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직 내 상하직급 간 의사소통의 벽을 허물기 위해서는 상위직급의 기성세대가 스스로 권위주의를 버리고 젊은 세대를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조화

세대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기성세대와 신세대 어느 한쪽만의 짐은 아니다. 먼저 기성세대는 변화를 거부하기보다 새로운 세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선배의 입장에서 올바른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Y세대들의 팔로워십도 중요하다. 무조건적으로 기존의 방식에 비판적이기보다는 후배의 입장에서 그간 조직을 이끌어 왔던 핵심적인 가치들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성세대의 리더십과 Y세대의 팔로워십이 조화를 이룰 때 세대 차이는 더 이상 조직의 짐이 아닌 귀중한 자산이 되어 그 빛을 발할 것이다.

직장 내 세대 갈등을 줄이기 위한 직급 간 자세



신입사원의 자세

신입사원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인드는 '공정'이다. 상사의 의견에 100%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즉시 반대 의견부터 표현하기보다는 우선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한 뒤에 똑 부러지게 제시할 의견을 이야기한다면 훨씬 설득력이 높아지고 분위기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불만을 너무 자주 드러낸다면 감정적으로 비추어질 가능성이 높고, 최악의 경우에는 상사의 눈에 투정만 부리는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만약 업무상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적절하게 확인하는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마감일을 가장 먼저 확인한 뒤, 프로젝트의 목표와 배경에 대해 질문하고 상사에게 적절한 중간보고를 하며 조언을 구한다면 업무적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업무는 경험을 통해 가장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선배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대답을 얻어낼수록 경험과 지식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중간관리자의 자세

중간관리자라면, 아랫사람들과의 대화를 칭찬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좋다. 적절한 칭찬은 후배를 북돋아 줄 뿐만 아니라 대화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 칭찬과 함께 후배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해 준다면 더욱 금상첨화일 것이다. 후배들은 아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선배의 눈으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거나 경험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알려 준다면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조력자로서 후배가 주도권을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다. 또한 일방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기보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보자. 후배에게 아무리 작은 일을 주더라도 그 일에 대한 배경과 목표 등을 설명해 주고 큰 그림을 보는 눈을 길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면 점점 성장하는 후배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더불어 후배가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기성 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조화롭게 구사하고, 양방향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장려하며, 세대간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직장 내 세대 차를 줄이고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플라스틱은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 폴리프로필렌(이하 PP)은 가볍고, 환경친화적이며 내열성,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많은 산업적 구조재료로 사용된다. PP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환경적으로 무해하고, 나선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수성(Hydrophobic) 표면을 가진 반 결정 고체 소재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자동차, 식품포장, 섬유, 가전 등 폭넓은 산업에 이용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여러 가지 매체와 접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친수성(Hydrophilic) 매체와 접촉을 할 때 혼화성이 부족하여 표면개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표면개질의 방법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폴리프로필렌(PP)의 용도 확장을 위한 표면개질

기술팀 하구열 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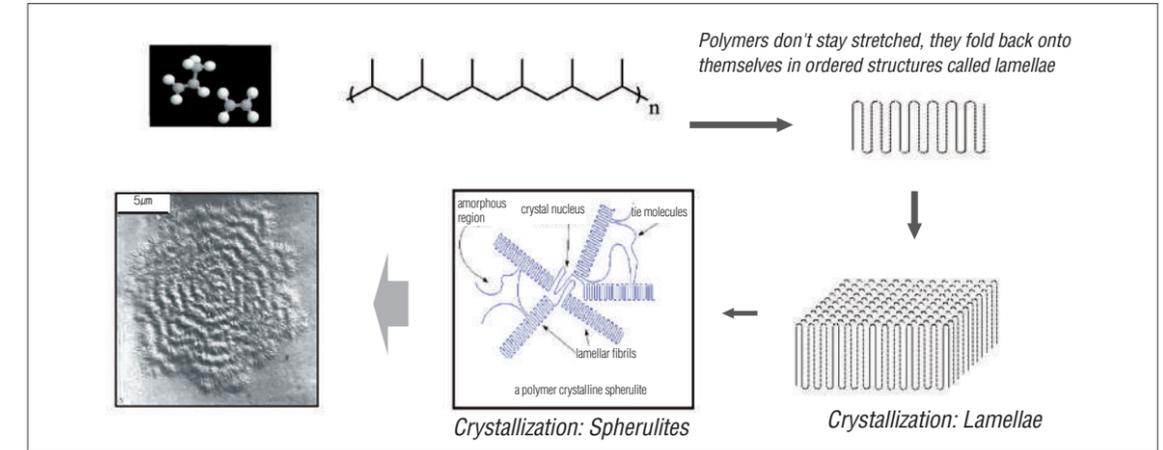


그림 1. PP와 반 결정체의 소수성(Hydrophobic) 표면 특성

자동차 분야나 가전제품, 화장품 용기 등의 플라스틱 몰딩 부품은 인쇄 또는 페인트 처리 작업으로 외관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버진 PP(Virgin PP) 레진으로 사출된 제품은 표면의 소수성이 강하여 친수성 인쇄 잉크 및 페인트를 코팅해야 할 때는 화염처리 등 표면을 산화시켜 표면을 개질시켜야 한다.

BOPP, CPP, Blown Film 등 많은 식품용 연 포장이나 시트, 박막필름은 필름 성형 후 합지(Lamination) 등 많은 후 가공이 진행된다. 이때 필름 또는 시트 표면에 강한 전기적 충격을 가해 표면을 산화시켜 극성을 도입하여 표면의 소수성(Hydrophobic) 표면에 친수성(Hydrophilic)으로 개질하여 피착체에 해당하는 합지 등의 매체와 분리를 막고 인쇄 잉크들과 접착이 잘 되도록 가공 중 표면 처리를 진행한다.

섬유분야도 마찬가지로 부직포의 용도 분야인 와이퍼(WIPES)나 필터미디어로 사용하기 위하여 표면을 개질하는 경우가 많다. 부직포(Non-woven)는 코팅 등의 산업용 규모로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폭넓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터미디어, 와이퍼(Wipers), 고분자 분리 막(Membrane), 초미세 합성 섬유(Microfiber) 등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특히 최근의 플라즈마 처리는 기존의 박막에서는 힘들었던 표면개질 및 코팅에 이용됨으로써 산업용이나 의료용 등 필터 미디어의 처리와 2차 전지 분리막(separator) 등에 친수성(hydrophilic) 개질을 가능하여 PP의 적용성을 확대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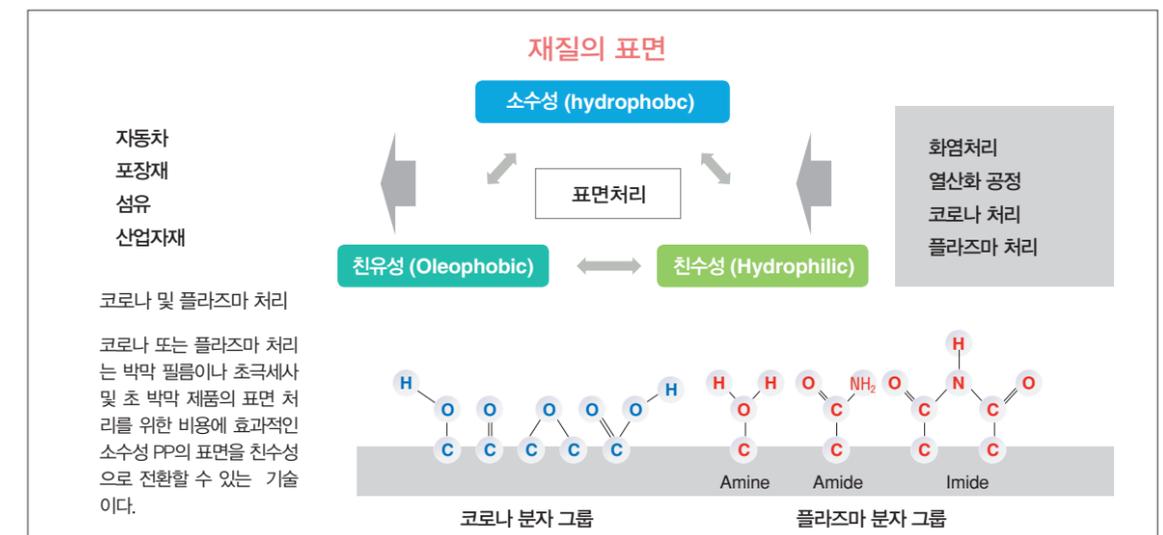


그림 2. 코로나 및 플라즈마 처리 시 표면 관능기의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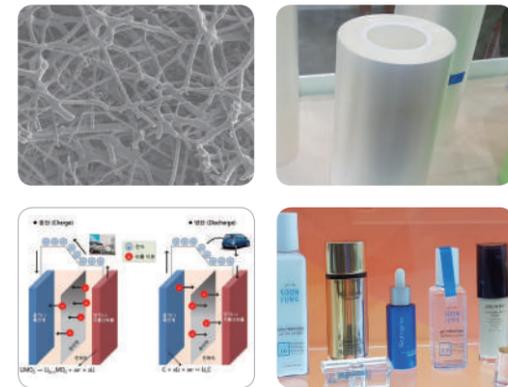
PP 표면에 코로나 처리와 플라즈마 처리

코로나	플라즈마	PP 표면에서 플라즈마 처리의 기능
<p>코로나 처리는 자연 상태의 기체 분위기에서 에너지를 가하는 방식 (공기 분위기)</p> <p>새로운 제어되지 않은 분자 결합이 처리 표면과 대기 중에 오존과 함께 발생 함</p>	<p>플라즈마 처리는 제어된 기체 분위기(혼합 기체)에서 에너지를 가하는 방식 (질소 또는 혼합가스)</p> <p>새로운 제어된 분자 결합이 표면에 발생한다. 화학처리 된 새로운 표면이 오존 없이 생성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 식각, 사슬 절단, 사슬 가교, 접착 및 기능성 부여 • 표면 유기 오염물 세척 및 제거 • 저분자량 성분 증발 • 몰딩 표면의 유기 오염물 세척 및 제거

위 두 가지 방식의 영향으로 인해 원자들과 분자들이 분열되어 양과 음의 전하를 띤 이온 또는 분자-이온이 생성된다.



폴리프로필렌의 표면 개질의 용도 예시



PP의 코로나 처리와 플라즈마 처리

	코로나 처리	플라즈마 처리	참고
설비 및 장치			
기능 및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 공정 가능 • 높은 수준의 친수성 개질 가능 • 생산 폭의 제한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수준의 친수성 개질 가능 • 핀홀(Pin-Hole)의 제거 • 제어 가능한 화학반응으로 저온 화염으로 가공 • 가공품의 폭의 제한이 없음 	
표면의 지속성	약 1주일 후부터 감소 주변 습도 등에 영향을 많이 받음	오랫동안 유지	
사용 환경	산소	질소 or 공기와 혼합	
오존 생성	생성됨	생성되지 않음	냄새에 영향
재질 변형	열 발생	열 발생 없음	초미세 합성 섬유 박막 필름가공
표면 형태	영향을 받음	영향을 받지 않음	
작업 환경	냄새가 심함	폐쇄된 환경	
설비	양호	고가	

플라즈마 설비의 주요 특징

주요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C 자성 플라즈마 • AC 타입의 이중 전극 플라즈마 • 자기 강화 이중 중공음극
에너지소비전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C 80 KHz 0.8~1.0 KJ/M2 • 빠른 전호 감지 및 억제 시스템
에너지 선량 (Energy Dose)	• 0.8~1.0 KJ/M2 까지

일반적으로 코로나 및 플라즈마 처리를 통해 PP의 표면을 개질할 때, 표면에 노출된 부문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남으로 PP의 올리고머 함량 및 발색단을 형성할 수 있는 산화방지제의 종류 등이 큰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올리고머 함량이 현저히 적고 제어된 산화방지제가 처방된 메토센 HM2089가 코로나 처리 후 높은 표면개질이 가능하고 주변 습도 등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을 아래 그림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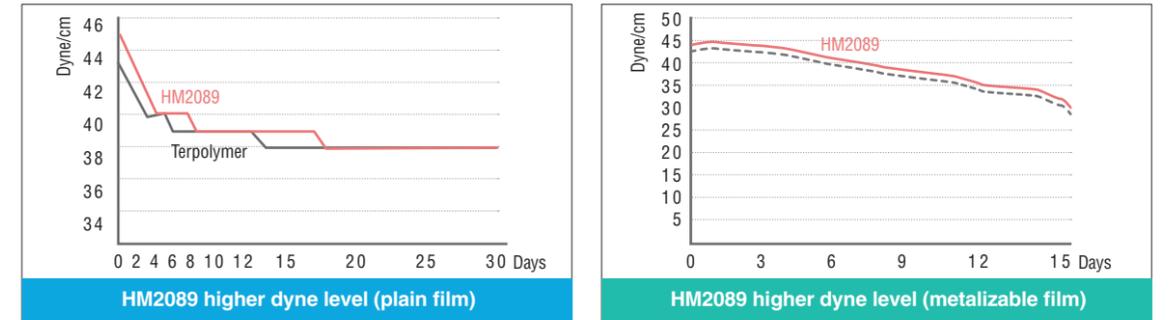


그림 3. 표면개질 개선 조절제로 사용되는 Ter-PP와 메토센 HM2089의 특징

통상적으로 PP에는 알킬 페놀 타입(Hindered tertiary butyl alkyl phenol type)의 산화방지제가 사용되는데 코로나 또는 플라즈마 처리 시 이러한 기능적인 그룹들이 부반응을 일으켜 표면적인 아래 그림과 같은 스틸벤(Stilbene) 또는 퀴논(Quinone) 구조의 발색단(Chromophore) 형성으로 표면적인 큰 필름 롤(ROLL) 및 극세사 등에 색상을 띠기도 한다. 이런 사항을 고려하여 제품을 만드는데 반영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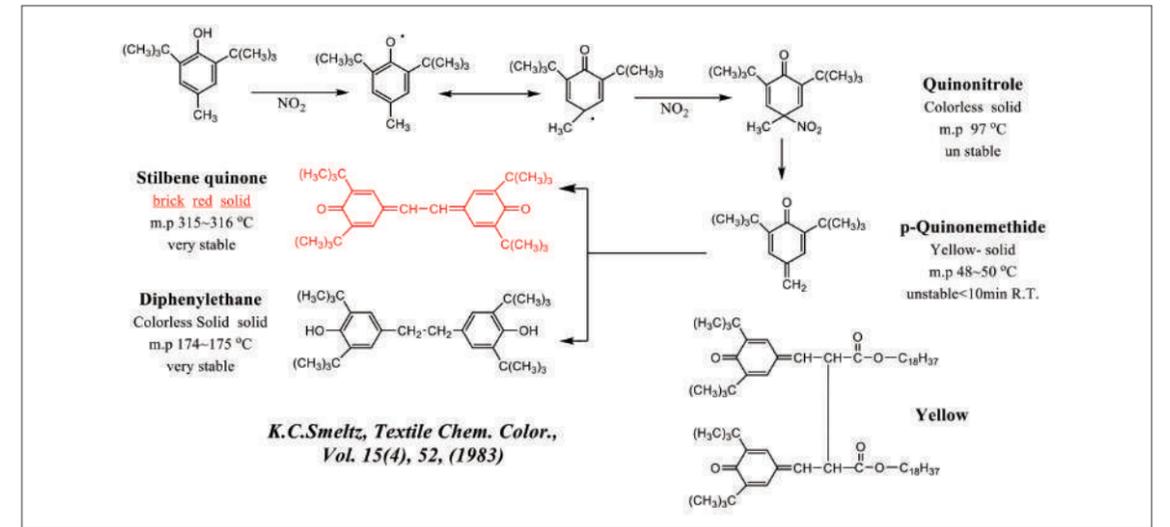


그림 4. 알킬 페놀 타입(Hindered tertiary butyl alkyl phenol type)의 발색단 형성 메커니즘

향후에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PP가 특수한 용도에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고, 이와 함께 표면처리에 의한 표면개질의 요구 사항이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PP의 표면개질을 위해서는 원료의 조성 및 첨가제 최적화, 코로나 및 플라즈마 처리에 관한 복합적인 기술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층필름을 적용한 포장 재료나 이차전지의 분리막 등 산업용 특수 필름, 다양한 극세사의 용도 개발, 필터 미디어로 적용 시 필터 미디어의 개질 코팅 등에 플라즈마 처리는 PP의 한계를 극복하는 표면개질에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다. 융합 기술의 발전과 함께 PP 또한 새로운 적용 영역이 개발되고 그 적용 범위가 무궁 무진하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피피 공장 기공식 개최

지난 2019년 10월 22일, 폴리미래와 SK어드밴스드의 합작투자기업인 울산피피의 공장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울산 남구 황성동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 울산광역시의회 황세영 의장, 울산상공회의소 전영도 회장, 폴리미래 말티노 가벨리치 사장, 대림산업 김상우 부회장, SK가스 윤병석 사장, APC사 알 마트라피 CEO, 라이온델바젤 장 가드보아 수석부사장 등 국내외 여러贵宾들이 참석해 울산피피 공장 기공식을 축하했습니다. 앞으로 연간 40만 톤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게 될 울산피피 공장의 첫 삽을 뜬 기공식 현장! 다 같이 축하하는 마음으로 현장스케치에 담아봤습니다.



말티노 가벨리치 대표이사/사장



조셉 호이킨스 대표이사/사장



2019 폴리미래 우수협력업체 시상식

폴리미래는 지난 2016년도에 이어 2019년 11월 6일, 제2회 2019 우수협력업체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회사에 고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들 중 선정 마지막까지 치열한 고심 끝에 최종 8개 회사를 우수협력업체로 선정했습니다. 말티노 가벨리치 사장은 이날 시상식에 8개 회사의 우수협력업체 대표자들을 초청하여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환담을 나눴습니다.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을 꾸준히 이어가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선도하여 서로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지속 가능 경영은 선택 아닌 필수

조선비즈 전준범 기자

착한 기업 급부상의 이면에는 '공생(共生)하지 않으면 전멸한다'는 절박함이 숨어있다. 환경과의 공생을 예로 들어보자. 올해 9월 유엔(UN)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7년 남극에서 사라진 빙하 양은 1979~1990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다. 해수면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4mm씩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 상태가 지속하면 태평양과 대서양의 작은 섬 상당수가 4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남극 빙하가 모두 녹으면 해수면은 지금보다 73m 상승한다. 전 세계 평지 대부분이 물에 잠기는 수준이다. 기업 생존은커녕 인간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의미다.



“
프랑스 최대 해운 업체인 CMA CGM의 로돌프 사드 회장은 지난 8월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앞으로 우리 선박은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북극해는 해운사가 가장 선호하는 항로 중 하나다. 사드 회장은 “선박 사고로 기름이 유출되면 북극 지역 생태계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함께 가야 모두가 산다”

이처럼 문제가 심각 하다 보니 굴지의 대기업부터 앞장서서 지속 가능 경영을 강조하는 것이다. 세계 3위 규모이자 프랑스 최대 해운 업체인 CMA CGM의 로돌프 사드 회장은 지난 8월 에마뉼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앞으로 우리 선박은 북극해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북극해는 해운사가 가장 선호하는 항로 중 하나다. 사드 회장은 “선박 사고로 기름이 유출되면 북극 지역 생태계가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가의 명품 시계로 유명한 오메가는 자신들의 주력 모델에 후원하는 기관명과 로고를 새기는 적극성을 보여 화제를 낳기도 했다. ‘오메가 시마스터 아쿠아테라 굿플래닛’이라는 제품이 주인공이다. 굿플래닛은 환경보호 재단이다. 오메가는 오랫동안 이 단체의 해양 보존 활동을 지원해왔다. 오메가는 이 시계를 팔아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해양 보호에 기부했다. 또 다른 시계 브랜드 블랑팡도 해양 보존을 위한 과학 탐사와 수중 사진 촬영, 환경 포럼 등을 후원하고 있다.

프라다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소에 초점을 맞춘다. 이 회사는 일반 나일론 대신 ‘에코닐’이라 불리는 재생 나일론을 사용하는 리나일론(Re-Nylon)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에코닐은 프라다가 섬유 생산 업체 아쿠아필과 의기투합해 개발한 친환경 소재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만 날마다 100만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쏟아진다. 이 쓰레기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가에 미치는 경제 손실은 연간 13억달러(약 1조5200억원)에 이른다.

외국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지속 가능 경영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SK그룹은 2015년부터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진행 중이다. 올해엔 100여개 파트너사가 참여하는 ‘소셜 밸류 커넥트’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워터 프리 스크러버 시스템’을 도입해 하루 7만9000여의 폐수를 절감하는 동시에 협력사들과 ‘에코 얼라이언스’를 만들어 환경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

KCC는 기업 활동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환경 비용도 절감하기 위해 중·장기 환경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 완화를 목적으로 서울 서초구와 실시하는 ‘KCC 숲으로 프로젝트’,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형 태양광발전소 준공 등이 사례다. CJ대한통운은 고령 사회의 노인 일자리 문제 해결에 협조하고자 ‘실버 택배’를 시작했다. 전국 170개 물류센터에서 1400명 이상의 노인이 일자리를 얻었다. 코카콜라는 음료 생산에 사용한 물과 동일한 양의 물을 자연에 돌려주는 ‘통합적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를 2017년부터 실시 중이다.

착한 기업에 쏠리는 투자금

전문가들은 국내외 기업의 '착한 회사 만들기' 노력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착한 기업에 열광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도 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비(非)재무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다. 김준섭·이수경 KB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회책임투자(Social Responsibility Investment·SRI)가 수익률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우선시했다면, ESG 투자는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주주가치(수익률)를 극대화하는 선관주의 의무에도 방점을 둔다"고 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지난해 공적연금·사적연금·보험회사 등 1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관의 84%가 투자 시 ESG 관련성을 고려한다고 했다. 이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KB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ESG 투자 자산 규모는 2018년 말 기준 30조달러(약 3경5190조원) 규모로, 2014년 이후 연평균 14% 불어났다. ESG 투자를 주도하는 건 미국과 유럽 등이다. 미 자산운용업계의 ESG 투자 자산은 2012년 1조4000억달러 규모에서 지난해 12조달러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은 미국 연금 가운데 처음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 원칙'을 도입했다. 유럽의 지속 가능 투자 자산은 2018년 14조1000억달러까지 늘어났다.

ESG에 대한 높은 관심은 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다. 일본의 경우 공적연금(GPIF)이 2015년부터 사회책임 투자를 중시하면서 ESG ETF(상장지수펀드)를 투자 대상에 편입한 것이 큰 영향을 줬다. 큰손 GPIF의 행보에 많은 일본 기업이 ESG에 전향적으로 돌아섰다. 중국은 정부가 상장사에 대한 비재무적 요소 공시 의무화 계획을 세운 것이 결정적이었다. 2017년 12%에 불과하던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ESG 평가 설문 응답률은 2018년 59% 수준으로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느리긴 하나 한국의 대형 기관들도 국제 사회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인다. 지난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



“전문가들은 국내외 기업의 '착한 회사 만들기' 노력이 앞으로 더 적극적인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착한 기업에 열광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도 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비(非)재무적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서다.”



투자자의 의견권 행사 지침)을 도입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들어 수탁자책임실을 신설하고 본격적인 책임 투자 행보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최근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와 위탁 운용의 책임투자 내실화,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기금 적립금은 714조원이다.

동생들도 만형 국민연금을 따른다. 한국투자공사(KIC)는 3억달러(약 3519억원) 규모의 ESG 투자 자금을 글로벌 자산운용사를 통해 위탁 운용한다. KIC는 ESG 통합 전략을 구축해 전체 포트폴리오와 투자 프로세스에서 ESG를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사학연금은 사회 책임 투자 규모를 매년 500억원씩 늘려 2022년 3600억원 수준까지 만들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절차를 밟고 있다. ESG 펀드를 출시하는 자산운용사도 늘고 있다.

“투자 수익률도 더 낮네?”

기업은 지속 가능 경영을 부지런히 추구하고, 큰손들은 착한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성과는 어떨까.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2016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속 가능 이슈와 관련해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이 낮은 점수의 기업보다 연 환산 4.8%포인트 초과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모건스탠리 지속가능투자연구소는 지난 7년간 1만여개 펀드와 2800여개 계좌를 분석한 결과 지속 가능 투자의 성과가 전통적 투자를 웃돈다고 전했다.

공경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속 가능성이 높은 주식의 가치가 낮은 주식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는 연구 결과도 ESG 시장의 성장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2014년 국제 학술지 '매니지먼트 사이언스(Management Science)'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1993년에 지속 가능성이 높은 주식과 낮은 주식에 1달러씩 투자한 경우 2010년 두 주식의 가치는 각각 22.6달러, 15.4달러로 크게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ESG 평가가 양호한 기업일수록 중장기 실적 변동성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고 말한다. ESG 투자의 하락 방어력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폭스바겐은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건으로 ESG 평가에서 치명상을 입었다.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조작 사실 발표 이후 2주 동안 이 회사 주가는 43.1% 하락 폭락했다. 시가총액은 333억유로나 증발했다. 김상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ESG 점수가 둔화된 기업은 평균적으로 주가도 부진했다”며 “2020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ESG 등급 변화가 큰 회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뉴스 브리핑

2020 Newyear Vol.44



무재해 2700일(9배수) 달성

무재해 2700일(9배수) 달성

폴리미래는 2019년 8월 26일 자정부로 무재해 2700일(9배수)이라는 뜻깊은 기록을 달성하였다. 이는 회사가 2018년 10월 30일 무재해 2400일(8배수)을 달성한 이후 2019년 5월, 6월 용성공장의 대정비 작업을 안전하게 마치고 달성한 성과이기에 더욱 그 의미가 빛난다고 할 수 있다. 폴리미래 전 임직원은 이러한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2020년 예정되어 있는 평여공장의 대정비 작업을 잘 준비할 뿐 아니라 평상 시에도 일상화된 안전 문화를 바탕으로 사고없는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안전환경팀 임재영 팀장



폴리미래와 SK어드밴스드의 합작법인인 UPP 기공식 당일

울산피피(UPP) 공장 기공식 개최

지난 2019년 10월 22일, 울산 남구 황성동에서 울산피피(대표이사/사장 조셉 호이킨스)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울산광역시 송철호 시장, 울산광역시의회 황세영 의장, 울산상공회의소 전영도 회장, 폴리미래 말티노 가벨리치 사장, 대림산업 김상우 부회장, SK가스 윤병석 사장, APC사 알 마트라피 CEO, 라이온델바젤 장 가드보아 수석부사장 등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조셉 호이킨스 사장은 "이번 기공식은 울산피피에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며, 지역사회 고용 증대 및 연관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해 울산 신항을 포함한 울산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폴리미래와 SK어드밴스드의 합작법인인 울산피피는 이번 기공식을 기점으로 연간 40만 톤 규모의 PP공장 건설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인사 및 노사협력팀, 정승호 상무

LYB와 기술교류회의

회사는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탈리아 페라라에 위치한 LYB의 연구개발 센터에서 연례 기술교류 회의를 가졌다. 회사에서는 기술담당 임원인 하구열 상무를 비롯한 기술팀과 제조 부문의 생산 및 공무팀이 함께 참석하여 분야 별로 심도 있는 토의를 진행했다.



기술 회의에 참석한 폴리미래와 LYB 직원들

이번 회의에서는 2019년의 신제품, 기존 제품의 기술적 이슈에 관하여 점검하고, 자동차, 포장 재료, 섬유, 파이프, 의료용, 일반 소비재 등을 위한 2020년 개발이 예상되는 제품에 대한 폴리머 구조 설계, 특징, 제조방법, 지적재산권, 실험 평가기술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LYB의 새로운 세대의 촉매 기술 등 현재 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신세대 기술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져 더욱 차별화된 제품 개발 기회를 모색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LYB의 새로운 기술개발 현황에 대한 최신정보를 상호 교환하였고, 이와 같은 기술 교류를 통해 스페셜티 제품 중심으로 개발을 진행해가는 폴리미래의 향후 기술 확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특히 이번 미팅에서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하여 글로벌 회사인 LYB의 재활용수지 개발 방향과 진행사항 등이 논의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폴리미래의 개발 방향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교류를 통해 우수한 신제품 출시, 신속하고 정확한 기술 서비스의 제공, 고객의 니즈 충족 및 판매 시장 다양화 등을 이뤄 폴리미래가 PP 전문기업으로써 리더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술팀 하구열 상무

폴리미래 메토센 제품 생산 10주년

회사는 2019년 11월 17일부로 메토센 제품 생산 10주년을 맞이하였다. 폴리미래는 2009년 10월 처음으로 메토센 프로젝트를 시작, 가동 전 점검 등 메토센 생산 공정에 대한 상업 생산 준비를 거쳐, 2009년 11월 17일 메토센 촉매를 투입한 메토센 제품을 최초로 생산하였다. 최초 생산 이후 여러 가지 문제나 공장 가동정지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솔루션 마련을 위한 운전기술과 공정설비 개선 등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현재의 안정적인 메토센 제품 생산과 운전기술을 확보하게 되었다.

향후에도 폴리미래는 장기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메토센과 같은 제품을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한 팀으로서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

공정팀 이길중 팀장

도레이첨단소재와 기술세미나 개최

회사는 지난 9월 9일, 경북 구미에 소재한 도레이첨단소재 제3공장을 방문하여 양사의 기술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아시아 최초로 SMS, SMMS, 복합 섬유 스펀본드를 공급한 최고의 스펀본드 기업 중 하나다.

이번 회의에는 폴리미래의 기술팀, 내수영업팀, 시장개발팀, 참석하였고, 도레이첨단소재의 SB기술팀과 섬유재료연구소가 참석하였다. 기술 세미나에서는 기술담당 임원인 하구열 상무를 비롯한 기술팀이 섬유응용분야에서의 PP 소재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였고, 회사의 스페셜티 제품군(소프트 스펀본드, 멜트블로운, 메토센 등)을 포함한 경쟁력 있는 제품 포트폴리오가 소개되었다. 세미나 후반에는 질의응답, 기술개발 동향 및 제품개발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사는 향후 지속적인 기술 미팅을 통하여 신제품을 개발하는 파트너십 구축을 강조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기술팀 하구열 상무

K-Fair 2019 참가 및 유럽 및 터키 고객 방문

폴리미래는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 국제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 박람회인 K-Fair 2019에 참석하였다. K-Fair는 3년에 한 번씩 독일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로써, 이번 K-Fair 2019에서는 특히 재활용 시스템과 지속 가능한 원자재, 자원 절약 프로세스에 관한 솔루션이 큰 화두였다. 회사는 이번 전시회를 기회로 이에 대응하는 폴리미래의 현재 상황 및 전략을 고객에게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폴리미래는 이번 행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LYB의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폴리미래의 스페셜티 제품(메탈로센 멜트블로운, 고기능성 컴파운드 & 포장재용 PP와 신규개발 제품(소프트 스펀본드)의 성공사례를 고객 및 해외판매 채널에 홍보하였는데,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가 고객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전시회를 필두로 유럽과 터키의 고객 방문을 통해 스페셜티 제품의 신규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양한 잠재고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장개발팀 김승현 과장



K-Fair 2019에 참가한 폴리미래 직원들



베트남플라스에 참가한 박중윤 과장과 임채휘 대리

베트남플라스(VietnamPlas) 2019 참가

회사는 지난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개최하는 베트남플라스 2019에 참석하여 베트남 및 동남아시아 각국의 고객들을 만나 폴리미래의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는 한편, 여러 회의를 통해 시장동향 및 진보된 가공 기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베트남플라스는 베트남 플라스틱 관련 산업의 약 80%가 밀집된 호찌민시에서 18년간 개최되어 온 박람회로, 플라스틱 및 고무 분야의 국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플라스틱 시장의 최신 동향 및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베트남 최대의 플라스틱 전시회다.

베트남 최대 규모의 전시회장인 사이공 전시 컨벤션 센터(Saigon Exhibition & Convention Center)에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중국, 인도, 이란, 이탈리아,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을 포함한 10개국 및 약 500여 개의 기업이 참석하여 부스를 열고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성형기기에 관한 솔루션과 진보된 제품을 한 자리에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포화된 중국 시장을 넘어 급변하고 있는 동남아 플라스틱 시장 변화를 이해하고 개발하기 위해 LYB 베트남 지사와 처음으로 함께 참석하여, 회사의 차별화된 제품을 홍보하고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POE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슈퍼 임팩트 코폴리머 제품인 EP140R 및 고흐름성 및 고충격 제품인 EP5077 제품, 낮은 VOC로 자동차 산업에 대응하는 메탈로센 PP 등 현재 동남아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품을 내세워 다양한 잠재고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장개발팀 박중윤 과장

BAP 주요 고객사 전략 회의 개최

회사는 지난 8월 30일 LYB 광저우 사무실에서 BAP 주요 고객사 전략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는 폴리미래 제품의 중국 및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 수출을 담당하는 영업 채널인 BAP(Basell Asia Pacific)와 함께 주요 거래처를 대상으로 현 비즈니스 현황을 검토하고 향후 시장 예측 및 발전된 비즈니스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국제 시장과 국가 및 용도별 시장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고객사별로 각각의 비즈니스 현황 및 고객 니즈를 파악하고 향후 시장을 예측하여 각

업체에 맞는 솔루션을 제안하였다. 또한, 업체의 신규 제품 개발 및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당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업체별로 다양한 실천 항목 및 계획을 구축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회사는 업체별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가까운 거리에서 고객을 관리함으로써 시장 개발 및 판매 기회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업체별로 제시된 다양한 실천 계획을 꾸준히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고정 고객 확보 및 고객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장개발팀 김학상 팀장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평가 A등급

10월 14일부터 일주일간 폴리미래 여천공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PP#1공정과 PP#2공정에 대한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정기검사 및 종합적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확인·평가를 받았다.

그 결과 2016년 PP#3, 2017년 PP#4공정에 이어, 남아있던 PP#1공정과 PP#2공정에 대해서도 모두 A등급을 받았다.

이는 사장님 이하 모든 임직원들이 안전시설 및 안전 문화를 이루기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했을 뿐 아니라, 여천공장 직원들이 팀장을 중심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안전조업 및 안전관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종합적 안전관리 규정은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4년마다 시스템뿐 아니라 현장안전관리까지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는 것으로서, 점검 후 A, B, C 총 3등급으로 나누어 차등 평가되며, 그 중 A등급은 최상위 등급으로서 평가대상 업체의 10~20%에만 부여된다.

안전환경팀 김태수 부장



안전관리규정준수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

싱가포르 코페리온 부사장의 정기 방문 및 기술 회의

10월 28일 싱가포르 코페리온 부사장인 베니 에버라트(Benny Everaerts)와 코페리온의 한국 에이전트인 ABCO의 고다원 차장이 방문하여 폴리미래의 공정팀, 공무팀과 생산1팀 및 2팀 압출기의 안정적 운전을 위한 예비 부품 관련 회의를 진행하였다. 코페리온은 세계 최고의 압출기 공급업체로 폴리미래는 4기의 압출기 중 3기에 코페리온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압출기는 PP제조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이며 압출기를 안정적으로 운전하는 것은 PP생산공정의 필수요소다. 이번 회의에서 생산라인 3의 압출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코페리온에서 예비 부품을 신속히 공급하여 공장 운전이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것에 대하여 회사는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폴리미래는 압출기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전하기 위해 압출기 공급업체와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팀 하대봉 부장

도레이첨단소재, 폴리미래 공장 방문

폴리미래의 스피본드 PP와 멜트블로운 PP를 사용하여 고객의 용도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도레이첨단소재에서 폴리프로필렌 제조공정과 공급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향후 신제품 개발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월 12일 폴리미래 여수공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한 도레이첨단소재 직원들은 폴리미래 생산팀과 자동 2창고, DIC의 품질 보증팀을 견학하였으며, LYB와 폴리미래의 뛰어난 운전 지표, 7년 연속 무사고 사업장으로서의 안전관리 성과, 고품질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확인하고 깊은 신뢰감을 나타냈다. 이어 신규 제품의 개발 공급에 대한 논의와 함께 향후 양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한 협력을 강조하며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공정팀 이흥석 과장

뉴스 브리핑

2020 Newyear Vol.44



여수에서 개최된 2019 코페리온 기술 업데이트 세미나

2019 코페리온 기술 업데이트 여수 세미나 참석

10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코페리온은 힐렌브랜드(Hillenbrand Inc.) 그룹사에 속해 있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기술에 대한 세미나를 여수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에 적용되는 압출기, 피더(Feeder), PCS(Pneumatic Conveying System)에 대한 이론, 기술 변천사, 유지보수 서비스, 신규기술 및 개선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에 대한 소개 등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는 코페리온의 최신 기술을 홍보하였고, 독일 본사 및 싱가포르에서 9명의 직원이 참석하여 회사와 제품 소개, 기술적인 원리와 지식 등을 발표하였다.

폴리미래 공장 엔지니어들도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공장 운전에서 볼 수 없는 기술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동영상 자료를 통해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을 눈으로 직접 보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상당수의 코페리온 기기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폴리미래 여수공장의 운전 효율성, 문제 원인 파악과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팀 정재근 과장

일본 멜트블로우 고객 방문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시장개발팀 김학상 팀장, 박홍준 대리, 그리고 기술팀 박세영 대리가 일본의 글로벌 멜트블로우 업체를 방문하여 현재 일본의 부직포(Nonwoven) 시장 상황 및 비즈니스 현안, 그리고 고객니즈를 파악하는 회의를 하였다.

일본의 부직포 시장 규모는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 다음으로 큰데, 특히 부직포가 많이 사용되는 어린이 기저귀 시장은 고급화 및 해외 수요 증가로 시장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폴리미래의 멜트블로우 제품은 차별화된 제품으로 고품질을 인정받아 꾸준한 판매를 지속해 오고 있다. 끊임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신제품 소개와 향후 제품 개발에 대한 논의 등 비즈니스 기회를 넓히는 성과를 이루었다.

시장개발팀 박홍준 대리



APRCC 2019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말티노 가벨리치 폴리미래 대표이사

폴리미래 대표이사, APRCC 기조 연설

폴리미래 말티노 가벨리치 사장이 2019년 11월 7일과 8일 양일에 서울에서 개최된 2019 아시아 태평양 Responsible Care(RC)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했다. 2019년도 컨퍼런스는 한국 RC협의회에서 주최했다.

그는 "출범 이후 RC는 우리 산업이 직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해 왔고, 산업 문화가 크게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해왔다. 앞으로도 RC는 법률과 법규의 기준을 초월하여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는 자발적이고 사전적 조치인 RC가 우리 모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250명 이상의 업계 회원이 참석했으며, 30명 이상의 연사가 초청되었고, 다수의 전문가 토론이 진행되었다.

사업·자산관리팀 이영숙 부장



2019 폴리미래 우수협력업체 시상식

2019 우수협력업체 시상식

폴리미래는 2019년 11월 6일, 2016년도에 이어 두 번째 2019년 우수협력업체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2019년에는 평가대상을 회사에 제공하는 모든 원재료, 첨가제, 포장재, 기자재 및 서비스 공급업체로 확대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중 폴리미래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한 공급업체 중 최종적으로 8개 회사를 우수협력업체로 선정하였다.

회사는 혁신적인 개선활동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주는 우수협력업체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파트너십을 꾸준히 이어감으로써 상호 품질 경쟁력을 발전시키고 시장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리미래 말티노 가벨리치 사장은 우수협력업체 8개 회사의 대표자들에게 직접 감사패를 전달하였고, 모든 참석자들은 오찬을 함께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구매팀 송경식 팀장

2019 BAP 분기 마케팅 회의 개최

회사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에 걸쳐 LYB(광저우)에서 분기별로 진행되는 BAP(Basell Asia Pacific) 마케팅 회의에 참석했다. BAP 마케팅 회의는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 지역 및 오세아니아로 회사 제품의 수출을 담당하는 영업 채널인 BAP와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회의다. 이 회의를 통하여 회사는 BAP와 함께 급변하는 아시아 시장의 흐름에 맞춘 해외영업, 마케팅 및 기술 지원 등 종합적인 영업 전략을 구축하는 한편, 산업별 동향 및 시장 방향을 예측하여, 향후 요구되는 제품개발 및 프로모션 상황을 공유함으로써 차별화된 제품의 지속적인 판매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력 사업인 고급 임팩트 코폴리머의 시장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업무 협약 및 제품을 다양화할 방법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신규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는 제품인 슈퍼 임팩트 코폴리머 제품(EP140R), 플로우 마크 제거용 PP(EP5091, EP5175) 및 소프트 스펀본드용 PP의 업체 개발 상황을 검토하고 국내에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여, 보다 빠른 시장개발 및 성공적인 상업적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장개발팀 박종윤 과장

장 가드보아(Jean Gadbois) 부사장의 타운홀 회의

지난 10월 24일 LYB 부사장이자 폴리미레 이사회의 중역인 장 가드보아 부사장은 본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번 미팅에서 장 가드보아 부사장은 LYB 제조 공장 총괄 책임자로서 LYB가 지속 성장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전 성과, 기후 변화와 관련된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 운동,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QCP(Quality Circular Polymer) 화학 재생 공장 건설, 분자 재생 연구 및 기술에 대한 투자, 생분해성 공급원료를 이용한 순환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젊은 직원들에게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멘토의 활용이나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법 등 직장 생활에 실용적이고 도움이 될만한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인사·노사협력팀 정승호 상무



대화를 나누고 있는 폴리미레 CEO와 밀레니얼 직원들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 마친 후 단체사진

CEO와 밀레니얼 직원들과의 대화

지난 11월, 말티노 가벨리치 사장은 현재 폴리미레 구성원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주 구성원인 밀레니얼 직원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은 공장과 본사, 사업장에서 각각 열렸는데 밀레니얼 직원들은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내놓았고, 말티노 사장은 이제까지의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한 본인의 견해와 조언, 특히 직원들의 경력개발이나 회사의 미래와 비전 등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주요 건의사항의 하나였던 시차출퇴근제의 도입에 대하여 전 직원에 대한 선호조사 및 실행 방안 검토를 지시하고, 일과 삶의 균형 개선에 대한 다양한 개인적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간담회 후에도 별도 저녁식사를 통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양방향 소통을 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인사·노사협력팀 정승호 상무

2019 사회봉사활동 - 사랑의 김장나눔

폴리미레 본사 직원들은 지난 12월 6일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줄어든 후원물품으로 겨울철을 맞이하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웃과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진행되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모두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협조해준 덕에 봉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마무리 했다. 폴리미레 임직원이 사랑과 정성으로 직접 버무리고 담근 김장김치 및 깍두기 700kg은 서울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 등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하였다. 폴리미레는 우리 이웃들이 온기 가득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적인 봉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사·노사협력팀 유민지 사원

2019년 창립기념일 기념식 및 장기근속자 부부 만찬

지난 9월, 본사와 공장 각 사업장에서 19주년 창립기념일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장기근속자들에게 장기근속패를 전달하였고, 10월 중에는 그 동안 장기근속자들의 노고를 포상하는 의미로 공장과 본사 각각의 사업장 근교에서 부부동반 만찬이 열렸다. 여수공장 직원들을 위해서는 히든베이 라운지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감상하며 공장 장기근속자 부부 동반 만찬이 진행되었고 본사 장기근속자를 위한 부부 동반 만찬은 홍대에 위치한 알라또레 레스토랑에서 열렸다. 말티노 가벨리치 사장은 오랜 시간 동안 회사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성실하게 일해 온 직원들과 그 곁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배우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인사·노사협력팀 황호인 대리



여수공장 장기근속자 직원 부부 동반 단체사진

인사동정

임원승진

2020. 1. 1부
부사장 김방현

입사

2019. 7. 22부
나형식
신정민
심수연
윤찬미

2019. 8. 6부
배진성

부서/보직변경

2019. 7. 30부
생산팀 홍동의

2019. 10. 1부
시장개발팀 김학상 (팀장)
내수영업팀 전규범
시장개발팀 박종윤

2019. 7. 30부
생산팀 홍동의

2019. 10. 1부
시장개발팀 김학상
내수영업팀 전규범
시장개발팀 박종윤

2019. 10. 15부
생산팀 임종석
공정팀 정태형

2019. 11. 15부
공정팀 서성오

2019. 12. 2부
생산2팀 신원식

2020. 1. 1부
시장개발팀 심수연
시장개발팀 윤찬미
내수영업팀 나형식
기술팀 신정민
생산2팀 박찬형
노조위원장 정원희

2020. 1. 6부
생산1팀 정준호
사업자산관리팀 김승현

폴리미래 한마음 체육대회

지난해 10월 12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체육관에서 공장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체육대회 당일 교대근무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과 가족들을 포함한 150여 명이 함께 참석하여 서로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으로 회사에 대한 일체감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체육대회는 말티노 가벨리치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몸풀기 준비운동과 사회자의 응원 퍼포먼스 축가로 행사의 막을 열었습니다. 대회 전반에는 팀 화합 경기인 빅볼, 풍선기둥 세우기, 바람잡는 특공대, 배우자 및 아이들 경기인 갓발 뺏기, 신발양궁, 버블슈트 등 함께 협동하여 할 수 있는 게임이 진행되었고, 중간 휴식 시간에는 준비한 바베큐, 떡, 과일, 음료 등을 즐기며 서로 안부를 묻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후반에는 스포츠 댄스, 훌라후프 챔피언, 가족대항 볼슬레이 및 에어사다리 릴레이를 거쳐 단체줄다리기까지 알차고 다양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는 승패를 떠나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서로 한마음 한뜻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사·노사협력팀 황호인 대리



준비운동이
바나질 수 없죠!





사랑의 김장나눔

폴리미래 본사 직원들은 지난해 12월 6일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침체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 줄어든 후원물품으로 겨울철을 맞이하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웃과 조금이나마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자 진행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김장에 앞서 직원들은 위생모자, 앞치마, 고무장갑 등을 착용하고, 업무를 분담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김장이 처음인 직원들을 도와 전 직원이 협력하여 준비한 배추 및 깍두기를 모두 버무리고 담가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직원 모두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덕분에 신속하게 김장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폴리미래 임직원이 사랑과 정성으로 담긴 김장김치 및 깍두기 700kg은 서울 쪽방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 등 지역 소외계층에 전달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온기 가득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기대하며, 폴리미래는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지속적인 봉사를 해나갈 것입니다.

인사 · 노사협력팀 유민지 사원



모두가 한마음되어
담근 김치입니다



“폴리미래인이 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설렘 반, 두려움 반, 기쁨과 걱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폴리미래에 입사하여 매일을 정신 없이 바쁘게 보내고 있는 신입사원 네 명이 있습니다. 입사한지 벌써 4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비록 각자 맡은 일과 부서는 다르지만, 폴리미래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은 서로 닮아있습니다. 2020년 새해가 더 기대되는 이들이 들려주는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패기와 노력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신입들의 열정을 전합니다.



〈따뜻한 유대감을 준 폴리미래〉

나형식 주임 _ 겨울의 초입에 들며 점점 쌀쌀해지는 서울 날씨에 3개월의 여수공장 교육기간 동안 여수가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여수의 날씨뿐만 아니라 선배님들로부터 받은 깊은 배려와 관심으로 더욱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입사 후 3개월간 여수공장에서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낯선 도시인 여수에서 잘 적응하며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것은 기우였습니다. 인사팀 선배님들은 숙소 배정부부터 생활용품까지 꼼꼼하게 챙겨주셨고, 엔지니어 선배님들은 여수 생활 전반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친근한 환경을 조성해 긴장감을 풀어주시는 덕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선배님들과의 회식자리에서 현 석유화학업계 경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 시장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 섞인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제가 많이 팔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지만 모두들 믿겠다고 말씀해주시며 응원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수에서 교육을 듣는 것 이외에 가장 보람 있던 일은 다양한 선배님들과 ‘인연’을 맺은 것입니다. 단순히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닌 다양한 선배님들과 여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유대감을 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배님들과 함께한 스크린 골프에서 성공시킨 첫 ‘홀인’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무슨 일던 ‘처음’은 굉장히 떨리고 기대되는 일입니다. 폴리미래로부터 입사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떨리고 설렘했습니다. 여수에서의 3개월은 제가 폴리미래에 무사히 연착륙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고, 모든 선배님들 덕분에 기대하던 것 이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기대하는 바를 뛰어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들과의 좋은 인연 덕분에 폴리미래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나형식 주임**





폴리미래의 유연한 기업문화에 반해 회사의 일원으로 긍정적 에너지를 나누고 싶은 **심수연 주임**

<기대에 부응하는 심수연이 되겠습니다>

심수연 주임 _ 폴리미래로부터 최종 합격 연락을 받았던 때가 아직도 엇그제처럼 생생한데, 입사한지 벌써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입사 초반에는 모르는 것도 많고 모든 것이 새로워 서툴렀지만, 앞에서는 선배님들께서 이끌어주시고 뒤에서는 동기들이 도와준 덕분에 4개월 동안의 교육을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16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서 생활하여 한국의 기업문화는 오직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했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비춰진 한국의 회사 분위기는 보수적이고 수직적이었기에 입사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보다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수십 번 자문하던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입사 첫날, 저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회사 분위기는 굉장히 유연했고, 선배님들께 허물없이 지내는 것을 보며 폴리미래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수에서 교육기간 동안 선배님들께서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신입사원으로서 어떻게 나의 목표를 성취하고 회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 성실하게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남은 교육기간 동안 더 최선을 다하여 선배님들에게 단지 '중국어를 잘하는 후배'가 아닌 다양한 면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중국어도 잘하는 후배'가 되겠습니다.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영업 엔지니어>

신정민 주임 _ 안녕하세요! 영업직무 신입사원 신정민 주임입니다. 폴리미래 입사 준비를 하며 수 없이 폴리마을 읽곤 했는데, 이제는 신입사원으로서 자기소개를 쓰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폴리미래 영업직무에 지원할 당시, 직무 기술서의 지원 자격란에 '화학공학 또는 고분자 공학 관련 전공 우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영업직을 수행하는데 화학공학 지식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 들어 전공 내용을 깊이 준비하기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을 내세우는 방향으로 면접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차 PT면접에서 부족했던 전공 역량으로 면접관인 하구열 상무님께 원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1차 면접을 마치고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음에도 미흡한 준비로 인해 많이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컸습니다. 부족함을 깨닫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으나, 1차 면접에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실히 준비하여 2차 면접에 임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폴리미래가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하였기에 2차 면접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온다면, 확실하게 승부를 걸어 승리하는 인재가 되겠다는 **신정민 주임**

폴리미래가 원하는 영업직무의 인재는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사원이 아닌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고 가치를 제공하는 영업 엔지니어로 거듭나고자 열심히 지식을 쌓아오고 있습니다. 여수공장 교육을 통해 폴리미래 제품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배웠고, 현재는 기술팀 교육을 통해 제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타짜'의 명대사인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의 의미를 폴리미래에 와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배워야 할 것도 산더미라고 생각합니다. 먼 훗날 꾸준히 키워온 내공으로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온다면, 확실하게 승부를 걸어 승리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신입이 되겠습니다>

윤찬미 주임 _ 무더운 여름 7월 22일, 폴리미래 영업부서 일원으로써 이름을 올린 지 어언 4개월이 지나 이젠 제법 쌀쌀해져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어야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지난해 7월 22일 만큼이나 의미 있는 날이 또 있습니다. 설계 엔지니어로써 3년 7개월을 일했던 정든 첫 회사를 떠나오게 된 날입니다. 중고신입 치고는 꽤나 긴 경력을 갖고 있어 주변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저 또한 익숙해진 환경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신입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시절부터 석유화학 시장에서 영업 엔지니어로서 역량을 펼쳐보고 싶었고 더 늦으면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과감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며 수평적인 기업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저는, 폴리미래처럼 유연한 기업문화를 가진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폴리미래 입사 후, 본사에서 첫 회식은 저에게 매우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흔치 않은 점심 회식에 다국적 메뉴선정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사장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수에서의 4개월 간 교육은 설계 엔지니어에서 폴리미래 영업 엔지니어로 거듭나는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전 과정들을 기술 엔지니어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영업인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었으며, 여수에 계신 선배님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맺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선배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따뜻한 배려 덕분에 이제는 폴리미래를 '우리 회사'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현장에서 곧 시작될 저의 새로운 도전에 많은 격려와 따뜻한 눈길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따뜻한 배려로 이제는 폴리미래를 '우리 회사'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윤찬미 주임**



양손을 주머니에 넣고서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없다.

- 엘마월러 -

2020년 새해가 성큼 다가왔다. 상반기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되는 등 정부 정책도 일부 탈바꿈, 개선된다. '2020년 바뀌는 정부 정책' 가운데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제도를 추려 정리했다.

파이낸셜뉴스 권승현 기자

알아두면 편한 2020

새롭게 바뀌는 제도 꿀팁!



플라스틱 카드 운전면허증은 이제 안녕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정보기술통신부가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규제 샌드박스(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 유예시키는 제도)를 적용하면서다.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이동통신사의 본인 인증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 스마트폰에 등록할 수 있다. 사용자는 플라스틱 카드를 이용할 때와 동일하게 스마트폰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 자신의 운전자격이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출발이 가정 0~2세에게도 16시까지 기본보육

출산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에게 단비와 같은 '육아 친화 정책'이 2020년부터 시행된다. 오는 3월 1일부터 출발이 가정의 만 0~2세 아이도 늦게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맞벌이·출발이 구분 없이 모든 가정에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을 제공하면서다. 현재까지는 맞벌이 가정만 종일반(하루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 반면 출발이 가정 아동은 하루 최대 6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이용 가능했다. 긴급 보육 바우처를 쓰면 아이를 좀 더 오랫동안 맡길 수 있지만, 그마저도 매달 15시간까지만 가능했다. 다만, 제도 개편 이후에도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은 맞벌이 혹은 다자녀 가정만 신청할 수 있다. 연장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의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은 없다.

대형마트 자유포장대 포장용 종이박스 사라진다

2020년 1월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때 장바구니를 챙겨가야 곤란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요 대형마트의 자유포장대와 종이박스가 사라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하나로마트 등 4개 대형마트와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자율사항이긴 하지만, 각 업체는 종이상자와 포장용 테이프·끈 등을 치워야 한다. 일부 마트는 대용량 장바구니를 판매하거나 대여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장바구니 활용을 독려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국산 캔맥주 가격↓ 생맥주 가격↑

올해부터 국산 캔맥주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맥주와 막걸리에 부과되는 주세(酒稅)가 내년 1월부터 증가세 방식(제조원가에 과세)에서 종량세(용량에 따라 과세)로 전환되면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국산 캔맥주에 붙는 세금은 리터(ℓ) 당 평균 415원 내려간다. 반면 병·페트 맥주는 각각 23원, 39원 오른다. 생맥주에 부과되는 세액은 무려 445원이나 된다. 하지만 당장의 생맥주 가격에는 큰 영향이 없다. 정부가 2년간 20% 세금 감면 혜택을 줘 ℓ 당 207원 수준으로 인상 폭을 줄여줬기 때문이다.

출고가의 5%만 주세로 내왔던 막걸리에는 ℓ 당 41.7원의 세금이 붙는다. 다만 막걸리는 포장 용기 가격이 워낙 저렴해 종량세로 바뀌어도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맥주에 붙는 세금도 오를 전망이다. 오비맥주·하이트진로·롯데주류 등 외국 맥주를 수입하는 국내 회사들이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마일리지 함께 사용해 항공권 구매

부족한 마일리지에 현금을 더해 원하는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권을 구매할 때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복합 결제' 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현금(신용카드) 혹은 마일리지 가운데 한 가지 방식만 사용해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용 가능 기간 내 마일리지를 소진하지 못하거나 원치 않는 항공권을 사야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대한항공이 가장 먼저 복합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오는 11월부터 대한항공 운임의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다만 복합결제 시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시기·수요·노선·예약상황에 맞춰 상이하게 적용된다. 즉 실제 마일리지의 현금 가치로 얼마나 공제되는지는 구매 시점에서나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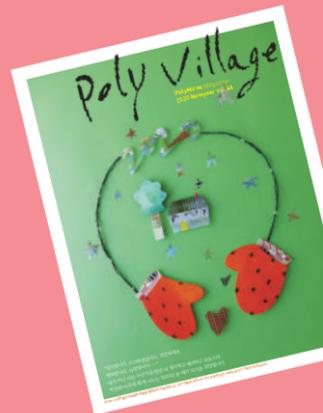
다른 그림 찾기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두 사진 중 다른 부분이 5군데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이메일(minji.yoo@polymirae.com)로
응모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 응모 시 반드시 이름, 상품을 배송 받으실
주소를 기재 바랍니다.



통권 43호 정답 및 당첨자 발표

▶ 당첨자

김오네(UPP), 박성빈(박홍준 사우 자녀), 장가영(김상배 사우 배우자), 박세리(정준호 사우 배우자)

PP의 한계를 뛰어넘는 Hifax EP140R

우수한 상온, 저온 내 충격성 제공으로 PP의 한계를 넘다



Hifax EP140R은 기존 PP가 구현할 수 없었던 충격강도를 제공하면서 기존 PP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우수한 충격성은 고객의 원가절감과 상온 저온 충격 물성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 Hifax EP140R